

中國 清代의 부채와 朝鮮時代 부채의 扇錘에 나타난 造形的 特性和 裝身具文化에 관한 小考*

黃珍璟**

<目 次>

1. 들어가는 말
2. 부채의 어원과 유래
3. 선추의 유래와 장식성의 발전
4. 선추의 조형분석
5. 디자인 연구
6. 나오는 말

1. 들어가는 말

본 논문에서는 한국과 중국의 전통부채 문화 속에서 부채를 더욱 돋보이게 했던 선추의 장식적 아름다움과 실용성을 연구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中國 清代와 韓國의 朝鮮時代 부채에 나타난 다양한 문양과 상징적 의미에 대하여 먼저 고찰하고 한국과 중국 선조들이 삶을 대하는 태도와 멋, 풍류를 현대의 장신구로 응용한 디자인 사례를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선추의 종류가 비교적 다양해진 한국의 조선 시대 부채의 선추를 중심으로 연구하였으며, 中國의 부채 중에서는 화려함을 자랑하는 清代의 부채를 중심으로 자료를 수록하였다. 논문은 먼저 부채의 어원과 유래 및 선추의 의미와 장식성의 발전을 살펴보았으며 선추를 조형적으로

* 본 연구는 숙명여자대학교 2013년도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음. 과제번호 1-1303-0270

** 숙명여자대학교 공예과 조교수

분석하였다. 또한, 선추의 구조와 형식, 다양한 기능과 재료, 선추의 문양과 의미를 통해 고찰하였다. 디자인 연구에 있어서는

四字成語에 내포된 상징적 의미가 서예의 필법 중 하나인 草書體를 어떻게 활용되고 선추의 메인모티브로 디자인되는지에 주목하였다. 본체-매듭-술로 연결되는 선추의 구조를 적용하여 총 7가지 스타일의 목걸이로 전개하였고, 서예의 필법 중 하나인 초서체(草書體)가 지닌 아름다움을 살려 四字成語를 선추의 주요장식으로 활용하였다. 주요재료로는 은, 황동을 사용하였으며, 한국의 전통매듭기법과 술로 장식하였고, 이밖에도 다양한 금속체인과 각종 비즈, 스톤 등을 활용하였다. 본 연구는 朝鮮과 清代를 화려하게 수놓았던 부채와 그 부채를 더욱 우아하게 장식했던 선추(扇錘)가 지닌 세련미와 품격, 그 장식성과 실용성을 살펴보고, 선추(扇錘)를 응용한 현대적 감각의 장신구를 제작함으로써 컨템포러리 장신구를 개발하고 그것을 문화콘텐츠 산업발전에 활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부채의 어원과 유래

부채는 한자(漢字)로 ‘선(扇)’ 이라 한다. 집이나 문을 뜻하는 호(戶)자에 날개를 뜻하는 ‘깃 우(羽)’를 합하여 이루어진 글자가 ‘부채 선(扇)’ 이다. 즉, 부채는 ‘집 안에 있는 날개’ 라는 의미이면서 동시에 ‘날개로 엮은 문짝’ 이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¹⁾ 부채는 주로 손에 쥐고 흔들어 바람을 일으켜서 더위를 없애는 용도로 쓰인다. 일반적으로 가는 대오리로 살을 만들고 종이 또는 형겅을 발라서 만든다. 부채에 관한 우리나라 최초의 기록은 『삼국사기(三國史記)』 견훤조에서 볼 수 있는데, 견훤이 고려 태조에게 공작선(孔雀扇)을 보냈다는 기록이 남아있는 것으로 보아 10세기에 이미 부채가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접는 부채에 관한 기록은 송나라 곽약허(郭若虛)의 『도화견문지(圖畫見聞志)』에 고려사신 최사훈(崔思訓)이 접는 부채를 사용했다는 기록이 있으며 이것을 근거로 11세기 중엽에 우

1) 금복현, 『빛깔있는 책들 13 : 전통부채』, 대원사, 2006, p.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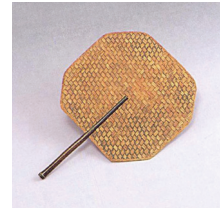
리나라에 부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²⁾



1. 곡두연엽선(曲頭蓮葉扇)



2. 곡장원선(曲張圓扇)



3. 오죽흑선(烏竹黑扇)

(그림 1) 조선시대의 다양한 부채의 사례

한국의 속담에 ‘단오선물은 부채요 동지선물은 책력’이라는 말이 있다. 단오(端午) 때는 초여름으로 곧 무더운 여름이 시작되므로 선풍기나 에어컨이 없는 시절에 부채는 한 여름의 필수용품이었을 것이다. 조선 말기까지 해마다 공조³⁾에서 단오부채를 만들어 진상하면 임금의 손수 신하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동국세시기』에 의하면 전라도와 경상도 두 감영과 통제영에서 부채를 만들어 진상하면 조정에서는 신하들에게 나누어 주었고 신하들은 자신들의 주변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풍습이 있었다. 부채를 선사받은 사람들은 그 부채에 금강산의 만물상을 그려서 다니기도 하고, 버들가지·복숭아꽃·나비·별·백로·부용 등을 그리거나 유명한 사람들의 시문(詩文)을 써서 소유하기도 하였다. 중국의 경우, 역사적으로 清代의 부채가 유물로 많이 남아 있는데 현재, 고궁박물관에 남아있는 부채의 대부분은 清代 황제의 수집품들이 주를 이룬다. 수집된 부채에 관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이 수집품들은 매 해마다 황제나 황후의 생일 때 공물의 일부로서 진상되었는데, 내무부 소관의 궁중 공방에서는 황제의 기호와 요구에 따라 부채의 형태를 수정하기도 했으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진귀한 재료와 정교한 조각을 지닌 예술적인 부채가 탄생되었다.⁴⁾

2) 우리네 여름이야기-일과 휴식의 시간』, 여름과 휴식 p.72-73, 국립민속박물관, 1998.
3) 조선 시대에, 육조(六曹) 가운데 산택·공장·영선(營繕)·도야(陶冶)를 맡아보던 정이품 아문. 태조 1년(1392)에 설치하여 고종 31년(1894)에 공무아문으로 이름을 고쳤다.
4) 故宮博物院 編, 『淸風徐來』, 故宮出版社, 2013, p 9.



〈그림 2〉 중국의 다양한 부채의 사례

1. Folding Fan with Flowers Painted by Lu Zhi and Poem Written by Yongyan, Ming Dynasty (1368~1644), 43x32(cm)
2. Folding Fan with Lotus Painted by Liang Derun and Poem on the Lotus Written by Li Wentian, Qing Dynasty (1644~1911), 45x29.3(cm)
3. Bamboo Woven Fan with Aloeswood Inlay on a Mat-like Ground Carved Handle with Silver-filigree Inlay, Xianfeng to Xuantong emperor's reign (1851~1911)
4. Round Fan with Flowers Painted by Hongwo and Wooden Handle with Ivory Inlay, Qing Dynasty (1644~1911), 51x31(cm)
5. Round Fan with Images of Phoenix, Chinese Parasol Tree and Peony on Kesì Style Yellow Silk and Red Sandalwood Handle Carved with 'Longevity' Characters Qianlong Emperor's reign (1736~1795), 49x33.5(cm)
6. Palm-leaf Fan with Tortoise Shell Handle and Carved Ivory Slat Qing Dynasty (1644~1911), 47.9x36.2(cm)

3. 선추의 유래와 장식성의 발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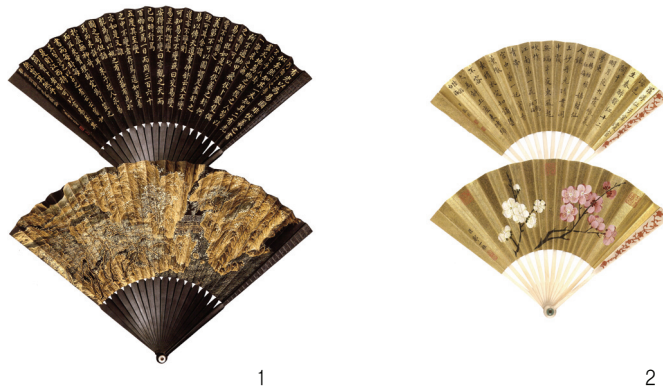
선추(扇鍾)는 부채 '선(扇)'과 떨어뜨릴 '추(墜)'가 더해진 말로 부채의 고리에

매어 다는 장식품이다. 선추(扇墜) 또는 선초(扇韶)라고도 하는데 부채 밑 고리에 중심을 잡기위하여 매단 일종의 노리개이다.⁵⁾ 선추는 中國에서 기원하였고 한국에서는 고려시대 때 처음으로 사용했다고 전해져 왔다. 중국은 예로부터 각종 재료를 사용하여 정교한 장인의 솜씨를 자랑하는 다양한 부채를 제작했는데 그 중, 청나라 시대 황제의 수집품들로 보존되어 있는 부채는 清代의 독특한 특성을 잘 나타내고 있으며 중국 역사 속에서도 매우 귀한 예술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화려함과 정교함을 자랑하는 부채들은 주로 궁중에서 사용되었으며 특히, 선추(扇鍾) 장식을 갖춘 부채는 매우 귀하여 초창기에는 궁중에서만 사용되었고 점차, 신분이 높은 고위층의 전유물로 사용되었다. 선추(扇鍾) 사용에 대한 기록은 송나라 때 고종이 신하들과 더불어 잔치할 때 “장순왕(張循王)의 부채에 옥해아(玉孩兒)의 추자(墜子)가 있었다” 고 했으니 당시에 선추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동국선제병증설(東國扇制辨證說)』에서도 “선추는 송나라 때부터 전해져 내려온 것”이라 하였고, 고려시대에 전해지는 유물 가운데 청동으로 된 것도 있어서 선추의 사용도 부채의 하나인 접선(摺扇)의 출현과 비슷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이렇듯 부채는 원래 더위를 쫓기 위한 실용성 때문에 만들어졌지만 항상 몸에 지니고 다니게 되면서 장식구적인 패용물(佩用物)로 발전하여 점차 실용성과 함께 장식성을 치중하게 되었다. 중국 清代의 황제들은 문학적인 매력 때문에 문자나 그림이 그려진 부채를 특히 선호했으며 그 결과, 부채에 문자나 그림을 조각하는 기술이 매우 번창하였다. 清代의 궁궐 수집품 중 문자나 그림이 그려진 부채는 몇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첫째는 다양한 왕조의 유명한 대가들의 문자나 그림이 있는 부채이다. 둘째는 황제의 손 글씨나 그림이 있는 부채로, 유명 화가의 작품이 그려진 부채의 뒷면에 황제가 새긴 시(詩)가 적혀있는 것도 있고, 황제와 관료들이 함께 그리거나 황제 자신이 직접 그린 문자나 그림이 있는 부채도 있다. 셋째는 궁정 화가들이 그린 문자나 그림이 있는 부채가 있는데, 궁정을 위해서 일했던 궁정 화

5) 금복현, 『빛깔있는 책들 13 : 전통부채』, 대원사, 2006, p.25.

扇鍾의 ‘鍾’은 鍾(추)와 동자(同字)로써 뜻을 나타내는 쇠금(金 광물·금속·날붙이)部와 음(音)을 나타내는 동시에 늘어진다는 뜻을 가지는 垂(추·수)로 이루어진 말이다. 저울대에 다는 쇠덩어리, 추의 뜻 저울추와 같이 끈에 달려 아래로 늘어진 물건(物件)의 통칭으로 사용되어 부채 끝에 매달리는 장식품, 선추(扇鍾)로 불리게 되었다.

가들은 주제 선택, 표현 방식, 미적 방향과 심지어 그림에 새겨지는 서명까지 특정 규칙을 따라야 했다. 또한, 이들은 궁중 관료들의 문자나 그림이 새겨진 부채도 제작했는데 이러한 부채는 황제의 명령에 의해 제작되거나, 황제의 취향에 맞추어으로써 황제의 호감을 사려는 시도에 의해 제작되었다고 보여 진다.⁶⁾



〈그림 3〉 중국 清代의 접선(摺扇)의 사례

1. Folding Fan with Landscape Painted by Dong Gao and Qianlong Emperor's Poems Calligraphed by Heshen, Qing Dynasty (1644~1911), 43.5x28.7(cm)
2. Folding Fan with Plum Blossoms Painted by Zou Yigui and a Poem with Seven Characters in Each Line Written by Zhang Zhao Qing Dynasty (1644~1911), 16.5x11.5(cm)

이러한 부채들은 서태후 재위 시의 작품들 중 가장 흔하게 볼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부채의 한쪽 면에는 풍경이나 꽃, 새 그림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유명한 서예 작품이나 다양한 왕조의 시, 또는 황제의 시가 새겨져 있다. 清代의 부채는 뛰어난 솜씨와 정교한 스타일을 자랑하는 서예 작품과 그림이 함께 어우러져 독특한 청대의 예술 형식을 구성하였다. 현재, 중국의 고궁 박물관에 보존되어 있는 清代의 부채는 대부분 접선(摺扇)과 둥근 부채가 주를 이루며 재료로는 얇고 탄력이 있는 실크나 새틴, 거즈 등이 사용되었고, 그 외에도 다양한 직물과 종이, 대나무, 깃털, 상아, 야자나무 잎으로 제작된 부채도 남아있다.

6) 앞의 책, 2013, p 9.



〈그림 4〉 다양한 재료로 제작된 清代의 부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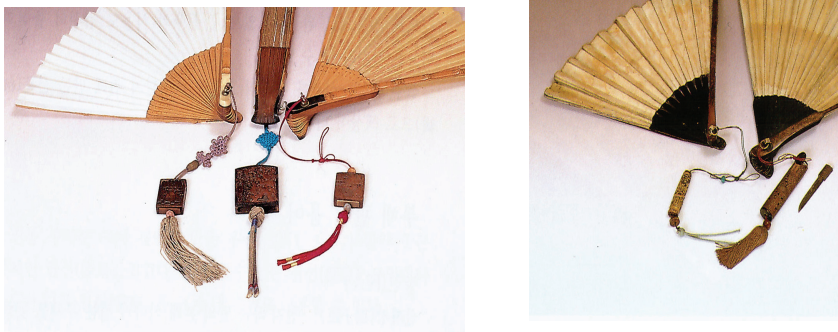
1. White Feather Fan, Qing Dynasty (1644~1911), 40x39(cm)
2. White Feather Fan with Bone Handle, Qing Dynasty (1644~1911), 23x42(cm)
3. Round Fan with Flowers and Antiquities Embroidered on Blue Satin and Blackwood Handle, Xianfeng to Xuantong Emperors' reign (1851~1911), Qing Dynasty, 47x29.2(cm)
4. Round Fan with Flowers Embroidered on Black Gauze and Carved Blackwood Handle, Qianlong Emperors' reign (1736~1795), Qing Dynasty, 46.2x31.9(cm)
5. Round Fan with Flowers and Butterfly Design on Kesi Style White Silk and Carved Wooden Handle, Jiaqing to Daoguang Emperors' reign (1796~1850) Qing Dynasty, 49.3x30.2(cm)

한국의 경우, 부채의 변죽(邊竹)⁷⁾에 화각장식(華角裝飾)이나 낙죽(烙竹)⁸⁾, 옷칠 등을 하거나 금, 은칠을 한 조선시대 부채가 대표적이다. 부채의 선면에는 화조, 사군자 등의 그림을 그려 넣기도 하고 종이 대신 홍견(紅絹)을 바르고 자루에는 진주를 사용하기도 하고 칠보로 화려한 무늬를 수놓는 장식을 하기도 하였

7) 부채의 양쪽 가장자리 것대.

8) 대나무의 표면을 뜨겁게 달군 쇠붙이로 글씨나 그림을 그리는 일.

다.9) 선추는 처음에는 부조(父祖)의 공으로 특별임용된 음관(蔭官)이나 당상관(堂上官) 미만의 무관은 사용할 수 없는 신분의 표시가 되는 지체 높은 장식이었다. 벼슬이 없는 사람은 사용할 수 없었으며 이후, 구한말 개화기에 이르러서는 신분에 관계없이 벼슬이 없어도 선추의 사용이 가능하게 되었다. 조선후기 선추는 농업생산력의 증대와 상품유통의 발달 등으로 인한 새로운 사회분위기의 영향으로 사치품(奢侈品)이 되어 호박(琥珀), 은, 비취, 소뿔 및 정교한 조각을 한 나무, 매듭 등이 사용되면서 진귀한 재료로 제작되는 고급화 경향을 보이게 되었다.10) 또한, 부녀자들의 고급스러운 화각홍선(華各紅扇)11) 같은 치레용 부채 자루에도 사용되면서 화려하게 장식하게 되었다.



(그림 5) (좌) 다양한 종류의 합죽선(合竹扇)과 선추, 조선시대
(우) 칠접선(漆摺扇)과 침통선추, 장도선추, 조선시대

9) 권영순, 「조선조 선추에 관한 조형분석적 고찰」, 홍익대학교석사논문, 1983, p 5
10) 유지인, 『선추(扇鍾)이야기-품격 갖춘 손안의 미술품』, 2013. 9.13. 경인 일보기사
11) 나무로 된 세공품을 곁게 조각하는 세공기법을 이용하여 부채의 선면을 붉은색으로 칠해서 만든 부채를 말한다. <그림1> 참조



〈그림 6〉 Ivory Woven Fan with Dyed Ivory-inlaid Orchids and Chrysanthemums and Painted Enamel Handle, Yongzheng to Jiaqing emperor's reign (1723~1820)



〈그림 7〉 Ivory Woven Fan with Dyed Ivory-inlaid flowers and Birds and Painted Enamel Handle, Yongzheng to Jiaqing emperor's reign (1723~1820)

4. 선추의 조형분석

선추는 기능과 재료, 문양과 형태별로 다양한 종류가 있으며 부채에 매달아 부

채 전체의 미적효과를 높이는 장식적인 기능 외에도 나침반이나 도장, 침통, 거울 등으로 활용하는 등 다각적인 실용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고려시대에는 금속으로 제작한 선추가 주를 이루었고, 조선 전기에 이르러 '본체-매듭-술'로 이루어진 선추가 제작되었다. 현재, 한국에 남아있는 선추는 대부분이 조선 후기의 것으로 이 시기에 이르러 선추는 다양한 재료와 용도로 변모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중국 清代와 한국의 朝鮮時代 선추의 구조와 형식을 살펴보고, 그 기능과 재료, 문양의 의미를 통해 선추가 지닌 조형적 요소를 고찰하고자 한다.

1) 다회(多繪)

선추는 본체(本體) 외에도 견사를 염색해서 만든 다회(多繪)와 매듭, 술, 구슬 등의 구조로 연결되어 있다. 다회(多繪)는 실로 땀아 만든 띠를 말한다. 선추는 뿔뿔한 동다회를 끈으로 하여 선추 속을 관통하여 지나가다가 중간부분에 매듭을 맺고 끝에는 술을 달아 부채에 매단 형태로 제작한다. 이들은 모두 같은 색채를 배치하여 동일감이 느껴지도록 구성하며 사용된 색상은 대개 남색, 보라색, 회색, 옥색, 자주색, 황색, 다홍색, 분홍색이 주류를 이룬다.

2) 매듭

전통적으로 한국의 매듭은 실을 합사(合絲)하여 두 가닥 또는 세 가닥 이상 꼬거나 짜서 만드는데 이것을 '끈목'이라 한다. 매듭은 끈목, 매듭, 술의 삼위일체가 이루어져야 미적완성을 이루며 선추에 쓰인 매듭은 양쪽의 고를 길게 뽑은 동심결(同心結)매듭이 주를 이룬다. 매듭의 위치는 선추 위쪽에 위치하여 선추를 돋보이게 하는 역할과 함께 술과 매듭사이에서 선추를 고정시키는 기능을 한다.¹²⁾

12) 김희진, 『한국전통매듭』, 국립중앙박물관, 2004.

(1) 도래매듭

매듭의 시작과 끝을 할 때 반드시 맺는 매듭으로 매듭이 풀어지지 않게 고정시키는 역할을 하기도 하며 매듭의 형태를 새롭게 바꾸고자 할 때에도 쓰이는 매듭을 말한다.

(2) 생쪽매듭

생쪽풀 모양같이 생겼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며 환희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 매듭은 전승매듭 중 가장 대표적이고 폭 넓게 사용되는 매듭이다.

(3) 동심결(同心結)매듭

동심결(同心結)이란 '영원'의 뜻을 가지고 있으며 비교적 쉬운 기법의 매듭이다. 사주보, 보석함, 비녀함 등을 쌀 때나 회갑, 진감용 폐백보 싸개끈에 매달기도 하고 주로 길일에 쓰이는 물건에 활용되었고 부채끈 등에 사용된다.

(4) 가락지매듭

매듭의 운치를 살릴 때나 다른 끈목을 연결하여 쓸 때 중간에 가락지처럼 끼워 화려한 색채로 장식하는 매듭이다.

(5) 국화매듭

국화매듭은 전승매듭의 주간(主幹)을 이루는 매듭으로 자손을 번창시키고 성공시킨다는 뜻을 담고 있다. 인내심을 갖춘 연습이 필요한 매듭이며 아름다운 형상이 국화의 형태를 이루었다고 해서 지어진 이름이다.



〈그림 8〉 선추에 사용된 매듭의 종류

3) 술

매듭에서 다화와 매듭의 구성을 더욱 돋보이게 하는 것이 술의 역할이다. 술은 띠, 끈, 노리개 등의 끝에 장식으로 달리는 여러 가닥의 실로 패물의 크기에 따라 크기를 맞추어 사용하였다.¹³⁾ 선추에 사용된 술은 세 가지로 아래와 같다.



1. 딸기술

2. 봉술

3. 방울술

〈그림 9〉 선추에 사용된 술의 형태

(1) 딸기술

딸기술에는 홀 딸기술, 겹 딸기술, 색동딸기술이 있으며 주로 도포끈, 노리개, 선추, 갓끈 등에 쓰였다. 술을 8묶음, 12묶음으로 나누어 차례로 엮고, 가운데에 작은 심을 박고 조여서 제작한다. 대개는 쌍으로 술을 달았는데, 발거리 딸기술은 길이가 길고, 노리개는 중간 길이, 선추용은 10cm 정도로 짧다.¹⁴⁾

(2) 봉술

봉술은 술의 머리에 봉을 감을 때 새기는 글자에 따라 王字봉술, 壽字봉술, 喜字봉술로 구분되며 노리개, 선추, 주머니, 남바위, 조바위의 잔술 등 그 용도가 다양했다. 봉을 만들 때 금사(金絲)를 감는 부분만큼 술이 안으로 겹쳐져야 맵시

13) 박용순, 「문화상품 디자인에 관한 연구-전통매듭을 중심으로-목원대학교 석사논문」, 2010, p.13~p.19.

14) 김은영, 『빛깔있는 책들 5-전통매듭』, 대원사, 2000, p.88~p.90.

가 나며 안으로 들어간 부분이 얇으면 봉을 감은 윗부분이 거칠어 곱지 않다. 봉을 두 개 나란히 단 것을 二봉술이라 하고 봉을 세 개 같이 배치한 것을 三봉술이라 한다.

(3) 방울술

방울술은 12사끈목으로 만든 술이며 연봉매듭¹⁵⁾을 맺고 밑을 한 뼘 못되게 늘어 뜨려 끈목의 끈을 정리한 후, 금실이나 은실을 섞어가며 배색이 잘되는 색실을 감아서 제작한다. 남자용 선추의 끝에는 대부분 방울술을 달았다.

4) 구슬

선추는 다화-매듭-술 외에도 다양한 재료의 구슬들을 사용하여 선추의 위나 아래에 배치하여 장식하였는데 주로 사용한 재료는 아래와 같다.

- (1) 호박(琥珀) - 지질 시대 나무의 진 따위가 땅속에 묻혀서 탄소, 수소, 산소 따위와 화합하여 굳어진 누런빛의 광물로 투명하거나 반투명하고 광택이 있으며, 불에 타기 쉽고 마찰하면 전기가 생긴다. 장식품이나 절연체에 사용되기도 한다.
- (2) 상아(象牙) - 코끼리의 엄니로 위턱에 나서 입 밖으로 뿔처럼 길게 뻗어있다. 맑고 연한 노란색이며 단단해서 표면을 갈면 갈수록 윤이 나서 악기, 도장 등의 공예품을 만드는 데 사용된다.
- (3) 석웅황(石雄黃) - 천연광물로 비소 화합물의 일종으로 쪼개져서 갈라진 면은 진주광택이 나며, 계관석(鷄冠石)과 더불어 산출된다. 누런색을 띠며 염료 또는 화약에 쓰인다.
- (4) 휘가사나무 - 목가구의 걸을 장식하려고 골재에 붙이는 나무를 엇비슷하게 썬 것을 '휘가사' 라고 한다. 선추에는 이러한 나무구슬을 꿰

15) 연꽃의 봉오리 모양의 둥근 매듭. 매듭의 기본형 가운데 하나로, 장도(粧刀)의 끈이나 단추, 매듭 장식 따위에 쓰고 고추다리매듭, 잠자리매듭의 기초가 된다.

어 멋과 풍류를 나타내었다.

5) 선추의 다양한 기능과 재료

선추(扇鍾)는 부체에 매달아 전체의 미적효과를 높이는 장식적인 기능외에도 나침반의 역할을 하는 패철선추(佩鐵扇鍾), 의료용 침(針)을 넣은 침통선추, 귀이개와 이쑤시개를 넣은 초혜집 선추, 도장의 역할을 하는 인장선추(印章扇鍾), 휴대용 응급약재가 되는 향선추(香扇鍾) 등 외출시 필요한 물품을 휴대하는데 사용함으로써 매우 편리한 용도를 지녔다.

(1) 패철선추(佩鐵扇鍾)

나침반기능이 있는 선추로 하나처럼 보이지만 겉과 안, 이중으로 분리되어 있다. 왼쪽의 선추는 황양목(黃楊木)¹⁶⁾으로 제작하며 나무표면은 누각과 꽃모양을 조각하였다. 안을 밀어내면 방향제시용 나침반이 들어있다. 상부갈색의 동심결매듭 끝에 선추를 매달고, 아래는 갈색의 방울술이 달려있다. 패철선추는 먼길을 가거나 묘(墓)자리를 보는 사람들이 주로 사용하였다.



〈그림 10〉 나침반선추

(좌) 선추 전체길이 46cm :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 민속박물관 소장

(우) 선추지름 3.2~3.4cm : 숙명여자대학교 박물관 소장

16) 버드나무.

(2) 침통선추

위급한 상황 시, 대처할 수 있도록 의료용 침(針)을 넣어 보관했던 침통선추는 주로 백동이나 은으로 만들었다. <그림 11> 침통선추는 사각형과 육각형의 기둥 형태로 금속표면에는 '많을 다(多)' 자와 '사내 남(男)' 자와 영지문양을 새겨 넣어 장수를 기원하였으며 육각기둥형 선추의 표면에는 박쥐문과 자손창성(子孫昌盛), 매화를 새겨 넣어 후대에까지 복을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매듭으로는 가락지매듭과 국화매듭을 사용하였고 금사를 감아서 방울술과 쌍봉술로 마감하였다.



<그림 11> 침통선추

(좌) 선추 전체길이 37.4~38cm : 숙명여자대학교 박물관 소장

(우) 침통부분 확대사진

(3) 초혜집선추

<그림 12>에서 초혜집 선추는 사기(沙器)로 만들었으며 이쭉시개나 귀이개를 그 안에 넣어 선추를 달아 사용하였다. 사기의 밑부분은 막혀있고 윗부분은 트여 있으며 선추의 위, 아래를 백색의 견사로 매듭을 맺어서 제작한 반가 노인용 선추이다. 동심결, 도래, 생쪽매듭을 각각 연결하여 제작하였다. <그림 12>에서 초혜집 선추는 운문(雲紋)을 조각하였으며 백색의 견사로 매듭을 맺었다.



(그림 12) 초혜집선추와 향선추 :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 민속박물관 소장
 1. 초혜집선추 전체길이 41cm 2. 초혜집선추 전체길이 37.5cm
 3. 줄향선추 길이(L) 33 cm 4. 백마미선추 길이(L) 35.5 cm

(4) 향선추(香扇鍾)

우리의 선조들은 향을 분말로 만들어 금, 은, 비취 등으로 조각한 향갑에 향을 넣어 술을 달아 노리개로 옷고름에 차기도 하였으며 부체에 매달아 선추로도 사용하였다. 선추에 매달린 향은 부채질을 할 때마다 은근히 풍기는 방향효과(芳香效果)도 있었지만 동산이나 뒤뜰을 거닐 때, 뱀의 범접을 막았을 뿐 아니라 귀신을 쫓는 벽사(辟邪)의 역할도 가지고 있었다. 또한, 향갑에 지니고 다니는 향은 방충(防蟲)의 역할도 하고 토사광란 등 시급한 응급상황이 있을 때, 구급약으로도 활용되었다. 향선추의 구조는 겉의 틀과 속심, 매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향목(香木)을 둥글게 깎은 향주(香珠)를 염주처럼 네 줄로 세워서 넣기도 하고 판형으로 만들기도 하였다. 겉은 흰말(白馬)의 꼬리로 엮고 안은 네 기둥에 배치하여 향주를 길게 엮어 만든 백마미 선추는 위로는 동심결매듭을 짓고 아래로는 방울술을 달아 장식했다.

(5) 그 외 다양한 형태의 선추

그 밖에 다양한 기능과 재료로 만든 선추가 있는데 인장선추(印章扇鍾)의 경우에는 나무, 상아, 돌 등의 표면에 조각을 하였으며 패철선추와 같은 구조로 작은 인장(印章)을 만들어 필요에 따라 사용하였다. 목조각 선추의 경우 단단한 재질의 흑단, 대추나무, 대나무, 떡감나무 등을 주로 사용하였으며 그 위에 식물문, 십장생문, 학문양 등을 조각하여 장식하였다. 특히, 결이 고운 대추나무에는 장생문양인 사슴이나 학, 송학, 박쥐와 누각, 태극, 당초문, 버섯, 불로초, 거북, 잉어, 대나무, 인물 등을 정교하게 조각하였다. 조선조 선추는 사각형, 원통형, 팔각형 등 기둥형의 선추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판형은 기둥형 다음으로 많이 쓰였다. 동물형으로는 원숭이, 박쥐형태가 있으며 물상형으로는 주머니, 엽전, 구형의 선추가 있다.

6) 선추에 나타난 문양의 의미

선추(扇鍾)에는 기능에 따른 적합한 구조를 갖춘 세심한 배려와 함께 선조들의 멋스러운 정서와 넉넉한 마음이 담겨있다. 특히, 이러한 정서는 다양한 문양(紋樣)으로 표현되었다. 문양은 각종 회화나 공예에 있어서 인간의 미의식을 구상화시키고 인간의 염원을 나타내는 역할을 한다. 또한, 정신적인 배경을 바탕으로 그 시대의 종교관, 사회관, 가치관 등을 반영하고 있어서 그들 나름대로 미적 가치이념의 상징성(象徵性)을 갖게 된다.¹⁷⁾ 선추(扇鍾)에 나타난 문양 또한 선조들의 꿈과 소망, 사랑, 믿음이 잘 나타나 있다. 조선조에는 특히 유교의 영향으로 인하여 이성적이고 현실주의적인 염원이 강하게 나타나있어 내세가 아닌 현세에서 온갖 부귀를 다 누리고 가문을 중요시하여 자손이 번창하고 무병장수를 기원했다. 선추에 나타난 주요 문양으로는 장생문, 산수문, 초화문, 화조문, 사군자문, 길상어문, 추상문, 문자문양 등이 제한된 크기에 알맞도록 구조와 형태를 다듬어 집약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한국과 중국에서 사용된 선추의 문양은 길상적인 의미를

17) 권영순, 앞의 책, p. 28

가지고 있으며 문자문(文字紋)의 경우, 단독으로 혹은 문양과 함께 사용되기도 했으며 주로 금속제 침통 및 초혜집 선추에서 볼 수 있다. 시문된 한자로는 수(壽)·복(福)·부귀(富貴)·강녕(康寧)·다남(多男)·만수무강(萬壽無疆)·자손창성(子孫昌盛) 등 현실적이며 인간의 본능적인 염원이 담겨진 문양이 많았다.

〈표 1〉 朝鮮時代 선추에 나타난 紋樣의 사례

	선추의 형태		시기	재료	문양
1			목조각선추 18C	흑단 동심결매듭 방울술 견사 산호	대나무뿌리 과실
2			목조각선추 18C	흑단 동심결매듭 딸기술 견사 산호	십장생 소나무 사슴 바위
3			상아조각선추 18C	상아 딸기술매듭 견사	매
4			자마노선추 18C	자마노 동심결매듭 방울술 견사	원숭이

〈표 2〉 中國 清代 선추에 나타난 紋樣의 사례

	선추장식	시기	재료	문양
1		자마노선추 18C	옥 도래매듭 자마노	대나무뿌리
2		투어마린선추 17C	투어마린 도래매듭	산 바위
3		투어마린선추 17C	투어마린	감
4		옥조각선추 18C	비취 산호 도래매듭	연잎
5		황옥선추 18C	황옥(黃玉)	팔괘(八卦)

5. 디자인 연구

21C 현대의 장신구는 단순히 개인의 기호나 취향을 표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착용하는 것을 넘어서서 착용자의 사상과 철학을 반영할 수 있는 예술적 심미성을 지닌다. 본 연구는 한국과 중국의 부채문화 속에서 부채와 그 부채를 장식했던 선추(扇錘)에 나타난 조형요소를 분석하고 선추(扇錘)를 응용한 현대적 감각의 장신구를 제작함으로써 컨템포러리 장신구를 개발하고 그것을 문화콘텐츠 산업발전에 활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자는 중국의 고전과 고사성어와 관련하여 그 유래와 현대적 의미를 되새기고 디자인의 모티브로 활용하는데 관심이 있어왔다. 디자인 연구에 있어서는 부채를 장식했던 선추(扇錘)와 사자성어(四字成語)를 모티브로 장신구를 제작하였다. 특히, 한자의 서체¹⁸⁾ 중 하나인 초서체(草書體)의 조형적인 아름다움을 활용하여 선추를 디자인하였다.

1) 사자성어(四字成語)의 활용

(1) 심외무법(心外無法)

마음 밖에는 법이 없다는 뜻으로 마음 속 깊은 곳에 인(仁)과 의(義)로운 마음을 지녀 바른 마음과 태도로 삶에 임하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현대사회는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물질적 가치가 정신적 가치를 앞서게 되고 사회정의와 윤리 도덕이 급격히 상실되어가고 있다. 심외무법(心外無法)의 의미를 되새기며 상실된 인간의 도덕성을 회복하고자 하는 마음을 담아 디자인하였다.

(2) 온고지신(溫故知新)

옛 것을 익히고 그것을 미루어서 새 것을 알게 된다는 뜻으로 논어(論語) 위정편(爲政篇)에 따르면, 공자(孔子)는 “옛 것을 복습하여 새 것을 아는 이라면 남의

18) 고문(古文), 대전(大篆), 주문(籀文), 소전(小篆), 팔분(八分), 예서(隸書), 장초(章草), 행서(行書), 비백(飛白), 초서(草書)를 이른다.

스승이 될 만하다. 〈子曰(공자) 溫故而知新(온고이지신)이면 可以爲師矣(가이위사의)니라.〉 주(注)에 보면 온(溫)은 심(尋)이라 하였다. 곧 찾는다는 말이다. 무엇을 찾았는가? 다시 주를 보면 심(尋)은 석고(釋故)라 하여 옛 것을 읽고 풀이하는 것을 말한다. 즉, 온고지신이란 옛 학문(學問)을 되풀이하여 연구(研究)하고, 현실을 처리할 수 있는 새로운 학문(學問)을 이해하여야 비로소 남의 스승이 될 자격이 있다는 뜻이다. 이는 21세기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깊은 울림이 있다.

(3) 자아작고(自我作古)

옛일에 구애(拘碍)됨이 없이 모범(模範)이 될 만한 일을 자기(自己)부터 처음으로 만들어 냄을 이르는 말로 “나로부터 옛 것을 삼는다” 라는 뜻으로 스스로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내는 것을 비유하는 말¹⁹⁾이다. 옛 것에서 배움을 찾아 현재에 적용하고, 자기가 만든 지금의 것이 미래의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게 한다는 점에서 온고지신(溫故知新)과 일맥상통하다고 볼 수 있다.

2) 디자인 연구

(1) Necklace - 心外無法 I, II

- 재료구분 : 925 은, 백동
- 표면처리 : Black 도금, Black-C
- 메인컬러 : Black/ 체인형/ 길이 68cm
- 디자인전개

한자의 해본체(楷本體)를 초서체(草書體)로 바꾸어 금속판 위에 부식하였다. 부식한 면을 살려 침통선추에서 볼 수 있었던 육각기둥형태로 제작하였다. 心外無法 I 은 Black 도금한 8줄의 체인을 하나로 모아서 육각기둥 안에서 고정

19) 구당서(舊唐書)의 『고종본기하(高宗本紀下)』에 수록된 글로, 중국 당(唐)나라 고종(高宗)의 고사(故事)에서 유래되었다.

시킴으로써 술의 형태로 체인이 자연스럽게 아래로 떨어질 수 있도록 제작하였다.

心
外
無
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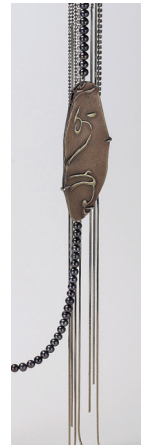
楷本體

心
外
無
法

草書體



<그림 13> (좌) Necklace-心外無法 I (우) 장식부분-확대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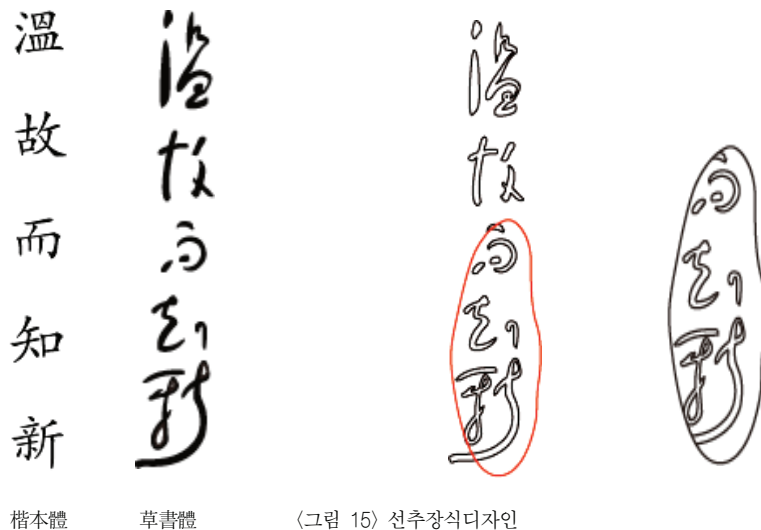


<그림 14> (좌) Necklace-心外無法 II (우) 장식부분-확대사진

(2) Necklace - 溫故知新 I, II

- 재료구분 : 925 은, 황동, 비즈장식
- 표면처리 : 유화가리 착색
- 메인컬러 : Blue Gray, White/ 체인형/ 길이 65cm
- 디자인전개

溫故知新 I 에서는 溫故知新을 한자의 楷本體에서 草書體로 변환한 후, “새로움을 알게 된다” 는 知新부분을 선택하여 왁스로 캐스팅하였다. 유황용액을 이용하여 자연스러운 황동의 컬러가 나올 수 있도록 표면착색 후, 프롭셋팅하여 스와로브스키 비즈로 연결하였다. 溫故知新 II 제작은 Pink 와 Purple을 메인 컬러로 사각기둥형 선추장식으로 적용해 보았다. 스톤위에는 금박을 입혀 화려함을 강조하였으며 하단부에는 딸기슬을 제작하여 스톤하단부에 배치하였다.



〈그림 15〉 선추장식디자인
글자를 부분 선택하여 장신구 장식으로 제작.



〈그림 16〉 (좌) Necklace-溫故知新 I



(우) 장식부분-확대사진



〈그림 17〉 (좌) Necklace-溫故知新 II



(우) 장식부분-확대사진

(3) Necklace-自我作古 I, II, III

- 재료구분 : 황동, 백동, 체인, 술
- 표면처리 : 18K 금도금, Black-C 착색
- 메인컬러 : Black, Gold/ 체인형/ 길이 70cm
- 디자인전개

自我作古 I 은 백동판을 부식한 후 각접기하여 침통선추에서 볼 수 있었던 사각기둥형태의 선추를 제작하였다. 부식된 글씨 안쪽 면으로는 금칠을 입혀 채색하였으며, 18K 금도금한 체인을 사각기둥 안에서 고정시킴으로써 체인이 자연스럽게 아래로 떨어질 수 있도록 제작하였다. 自我作古 II 에서는 크리스탈 비즈장식을 하나로 연결하여 오른쪽에 금속선추장식과 매듭술로 마감하였다. 선추장식은 유화가리 착색으로 마감하였으며 925 은을 사용하여 프롱셋팅 하였다. 목걸이를 착용했을 때, 선추장식과 술이 좌우로 돌아가거나 뒤집혀지지 않도록 안쪽으로 작은 고리를 아래위로 제작하여 스톤과 함께 묶어서 마감하였다.

自我作古

楷本體

自我作古

草書體



〈그림 18〉 (좌) Necklace-自我作古 I (우) 장식부분-확대사진



(그림 19) (좌) Necklace-自我作古II



(우) 장식부분-확대사진



(그림 20) (좌) Necklace-溫故知新III 전체사진
(중) 도래매듭의 연결구조
(우) 체인부분-확대사진

自我作古 III 는 금속제 선추형태에서 탈피하여 매듭을 강조하였다. 선추장식이 위치할 부분에 도래매듭과 쌀알형태의 체인을 연결하여 18K 금도금하여 고급스러움을 추구하였다. 도래매듭 아래로 7개의 생쪽매듭을 연결하였고 그 밑으로 금 실로 감은 가락지매듭으로 디자인의 전체적인 포인트를 주었다.

6. 나오는 말

급속히 변화하는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는 부채 끝에 선추를 흔들며 유유자적(悠悠自適)한 마음으로 계절의 풍류(風流)와 멋을 즐겼던 선조들의 후손임을 어느덧 잊고 사는 것 같다. 선풍기나 에어컨이 없었던 시절, 부채는 더위를 쫓기 위한 실용의 목적으로 항상 몸에 지녔던 한 여름의 필수용품이었다. 그러나, 일상 생활 속에서 부채의 사용도가 그리 높지 않은 요즘, 부채를 장식했던 선추(扇鍾)의 존재와 가치는 점차 잊혀져가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한국과 중국의 부채문화 속에서 부채와 그 부채를 더욱 돋보이게 했던 선추의 미학을 발견하고, 그 의미와 가치를 현대 장신구 문화로 계승 발전시키고자 하였다. 특히, 중국 清代의 부채는 왕실의 귀한 수집품의 하나로 역사적으로도 매우 귀할 뿐만 아니라 그 예술적 가치도 매우 높다. 본 연구에서는 중국 부채문화의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清代의 부채와 朝鮮時代의 부채와 선추(扇鍾)를 통해 그 예술적 가치를 재확인하며 선조들이 부채와 선추를 통해 보여준 지적 감수성과 미적 감각을 현대인들에게 널리 알리고자 한다. 연구의 이론적 배경으로는 중국 清代의 부채와 조선시대 부채와 선추장식을 중심으로 자료를 선별하였고 부채의 어원과 유래, 선추의 장식성의 발전에 관해 고찰하였다. 디자인 연구에 있어서는 다화-매듭-술-구슬로 이루어진 선추의 구조를 응용하였다. 과거, 한국과 중국의 선조들이 부채의 양쪽 가장자리 깃대에 화각장식(華角裝飾)이나 낙죽(烙竹) 옷칠 등을 하거나 금, 은칠을 하고, 흑단·백동·옥·구슬·자마노·견사·매듭·술 등 다양한 재료를 활용하여 선추를 제작했다면, 본 연구자는 재료

에 있어서는 전통매듭기법과 술을 그대로 사용하면서도 금속체인과 다양한 비즈, 스와로브스키 스톤 등을 활용하여 전통과 현대의 융합을 시도하였다. 또한, 중국 서예의 필법 중 하나인 초서체(草書體)로 사자성어(四字成語)를 활용하여 선추를 디자인하였다. 고사성어에 나타난 교훈경구나 비유 등, 상징적인 어문(語文) 중에서 심외무법(心外無法)·온고지신(溫故知新)·자아작고(自我作古)의 사자성어를 통해 총 7점의 목걸이를 제작하였고, 각각의 사진을 본 논문에 수록하였다. 이러한 연구과정을 통해 한국과 중국의 부채문화를 연구하고 그 역사적, 예술적 가치를 재확인하며 선추가 지닌 세련미와 품격, 그 장식성과 실용성을 현대화하여 컨템포러리 주얼리 영역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이 분야의 연구를 지속하고자 한다.

〈參考文獻〉

- 임영주, 『한국의 전통문양』대원사, 2004.
 한국문화상징사전 편찬위원 공동저술, 『한국문화 상징사전』, 두산동아, 2006.
 김은영, 『빛깔있는 책들 5-전통매듭』, 대원사, 2000.
 김희진, 『한국전통매듭』, 국립중앙박물관, 2004.
 심영환, 『조선시대고문서 초서체연구』, 고문서연구총서 1, 소와당, 2008.
 금복현, 『빛깔있는 책들 13 : 전통부채』, 대원사, 2006.
 『치레의 멋, 쓰임의 아름다움 : 장신구』, 숙명여자대학교박물관, 2005.
 『장신구』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 민속박물관, 1981.
 유지인, 『선추(扇錘)이야기-품격 갖춘 손안의 미술품』, 2013. 9.13. 경인일보.
 국립민속박물관 전시운영과 발간, 『우리네 여름이야기-일과 휴식의 시간, 여름과 휴식』,
 국립민속박물관, 1998.
 권영순, 「조선조 선추에 관한 조형분석적 고찰」, 홍익대학교석사논문, 1983.
 박용순, 「문화상품 디자인에 관한 연구 -전통매듭을 중심으로-」 목원대학교 석사논문,
 2010.
 故宮博物院 編, 《清風徐來》, 故宮出版社, 2013.

〈Abstract〉

Study on the Formative Characteristics and Accessory Culture shown in
Chinese Qing Dynasty Fans and Chosun Dynasty Fans of Sunchoo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tudy the decorative beauty and practicality of Sunchoo, which accentuated fans in the traditional fan culture of Korean and China, and to suggest design cases of modern accessories that incorporate Chinese and Korean ancestors' attitude towards life, beauty, and taste for the arts. In particular, various patterns and their symbolic meanings on fans of Chinese Qing dynasty and Chosun dynasty shall be investigated. This study was conducted mainly with late Chosun dynasty fan Sunchoo which had become more diverse than before as well as Qing dynasty fans, which were the more glamorous one among Chinese fans. Theoretical contemplation of the study include first: the etymology of the word fan, origin, and naming of the parts. Second, examination of the origin and meaning of Sunchoo and its decorative development possibilities; third, formative analysis of Sunchoo and contemplation of its structure, form, various functions and materials, pattern and meaning. In the design study the Choseochae, one of the traditional calligraphy fonts, is utilized as Sunchoo's main motif in the design that realize the innate symbolic meaning of four character idioms. Such research process is to seek the succession of Sunchoo's beauty and sophistication and its development potential as contemporary accessory. Design research included the development of 7 different styles of necklaces that implemented the Sunchoo structure of main body-knot-tassel and the beauty of Choseochae, one of the traditional calligraphy techniques, was used to utilize four character idiom as Sunchoo's main decoration. Silver and brass were used as main ingredients while various metal chains, beads, stones, etc, were used also.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take a look at the sophistication, class, decorative values, and practicality of Sunchoo, which made our fans that glamorized Chosun and Qing dynasty even more elegant and produce modern accessories which make use of such Sunchoo to further and develop contemporary accessories.

50 中國文化研究 第27輯

Key Words: fan, sun choo, the cursive style, knot, tassel, ornament

이 논문은 2015년 1월 15일에 접수되어 2015년 2월 5일에 심사가 완료되고 2015년 2월 15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